
2020년 제42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10. 9. ~ 10. 15.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길 따라 인문학		
방송일자	2020. 10. 10.	시청률	0.000

【총 평】

‘찬란한 고대문화, 대가야를 마주하다’는 근대 현대사에 묻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대가야 시대 찬란한 문화를 도읍지였던 경북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재조명했다. 특히, 가야금과 철기문화로 대표되는 대가야의 면모를 잔잔하게 서정적으로 잘 풀어냈고, 대가야 역사를 바로 알고 오늘의 문화, 역사와 어떻게 맥을 이어 가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흡인력 있는 기획이 돋보였다.

대가야의 유래, 유적, 토기, 가야금, 전통무예, 도자기, 개실 마을을 소재로 아직도 면면히 맥을 이어오는 대가야의 찬란한 고대문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대가야 문화의 실용성, 예술성, 우수성을 실제 사료와 유적, 유물을 통해 차별화, 부각시킨 점이 설득력을 높이는 요소였다.

가야시대 복장으로 당시 생활상을 재연한 흑백화면도 시각적 몰입도를 높이는데 유용했고,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고분 앞에서 가야의 상징 가야금 연주 장면도 가야시대로 이끄는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구성 및 내용】

가야의 건국신화부터 순장이 처음 발굴된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의 가야금과 제철기술, 집성촌인 개실마을과 도자기 등을 소개했다. 가야금 산조로 시작해서 가야금 산조로 마무리한 구성은 상징적이었고, 가야문화의 특징과 계절의 정서를 전할 수 있었던 효과적인 장치였다.

영남지역은 대가야의 문화와 역사, 전통이 남아있는 곳이다. 가야금으로 대표되는 가야의 시대, 가야는 42년에 세워져 520여 년간 지속했고 그중, 경상북도 고령은 대가야의 도읍지다. 다양한 유물이 발굴된 지산동 고분군은 당시 생활사를 잘 엿볼 수 있는 유적이다. 700여기의 고분이 소재해있으며 지난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에 선정되었다. 대가야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고 믿어 순장이 등장했다. 국내 최초 순장묘가 바로 지산동 44호분에서 발굴되었다.

가야금은 악성 우륵이 가실왕의 명을 받아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 전통악기를 대표하는데 오동나무로 판을 만들고 명주실로 12줄을 연결했다. 우륵은 백성의 삶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런 삶의 노래들을 모아 가야금의 음악들을 만들었다. 또, 대가야는 철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철을 이용한 양질의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고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까지 했다. 철기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기마문화도 발달했는데, 철제갑옷과 마구로 무장한 기마무사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다.

김동환 가야금 명장이 가야금 제작과정을 보여주고, 이준희 고령대장간 주인이 농기구를 만드는 작업을 통해 장인정신을 보여준 점도 당시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10. 10.	시청률	0.074

【총 평】

‘해녀, 숨비소리 - 제주도’는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는 제주 해녀들의 고단함이 묻어 있는 숨비소리를 통해 50년 넘게 물질을 해온 해녀들의 이야기와 제주의 가을 풍경을 담아냈다.

제주 해녀들은 보통 아침 8시에 바다에 들어가 아침, 점심도 거르고 바다에서 전복, 소라, 성게 등을 잡는데,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동안 차오르는 숨을 참다가 수면 위로 올라와 내쉬는 소리를 숨비소리라 한다. 2016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제주 해녀는 생명을 걸고 물질을 하며 자식을 키우던 어머니의 애절한 삶이 숨비소리로 시청자에게 전달되었다.

제주 특유의 방언을 통해 제주다운 지역적 모습을 느끼게 했고, 제주 해녀들의 바닷속 물질 모습까지 들여다보면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슬기롭게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성 및 내용】

‘해녀, 숨비소리 - 제주도’는 제주 해녀의 바닷속 물질 모습과 잠수복을 쉽게 입는 방법, 잠수하기 전에 챙겨야 하는 것, 바닷속으로 잠수하러 들어가기, 숨비소리 들어보기 등으로 구성했다.

해가 바닷물에 반짝이기 시작할 때 해녀들의 출근도 시작된다. 보통 아침 8시에 바다에 들어가 아침, 점심도 거르고 바다에 들어가는데, 치열하고 숨 가쁜 삶의 현상이 기다리고 있다. 제주 해녀들은 잠수할 수 있는 물의 깊이에 따라 대상군, 상군, 중군, 하군으로 서열을 나눈다고 하는데, 서열과는 상관없이 바다는 이들에게 일터이면서도 잠깐 방심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혹독하고 엄격한 세상이다. 하늘이 점지해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상군이 되는 해녀의 재능은 타고 나야만 가능하다고들 말한다.

30년을 쉬지 않고 바다속으로 들어간 대상군도 여전히 바다는 두려운 대상이다. 올해 71세의 애월읍 고내리에 거주하는 해녀 할머니는 이 직업을 두고 목숨을 내놓은 생활의 연속이라고 하며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쓰는 게 해녀물질'이라고 했다.

한 해녀의 친정집을 찾아 역시 해녀로 활동했던 그녀의 친정어머니를 소개하면서 감동을 더했다. 친정어머니가 88세까지 해녀로 활동을 했다면서 노모도 해녀의 삶을 살아왔기에 해녀들의 테왁, 물안경 등의 도구를 보며 서로가 서로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대를 이어 물질에 나서는 딸에게 항상 숨길을 아끼라고 당부하는 노모의 애잔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치열한 삶을 감추고 있는 제주의 가을 바다는 아름다웠다. 특히, 마무리 부분에서 “해녀는 절대로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숨비소리로 이야기 한다”는 메시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압축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10. 10.	시청률	0.041

【총 평】

최근 남북관계의 핫 이슈인 '공무원 피살사건'을 집중분석하고 남북관계 돌파구를 모색해 본 기획이 돋보였다. 공무원 피살사건이 남북관계의 '위기 속 기회'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공동조사에 협조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설득력을 높였다.

단박툃은 북한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 북한의 속내와 의미, 메시지를 점검했다. 특히, 대북제재, 코로나, 수해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군사력의 증강을 내세우며 인민들의 결속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최대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진정성을 촉구한 대목이 탁월했다. 삼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열병식을 여는 북한의 속내를 심층 분석해 본 구성이 몰입도를 제고했다.

【구성 및 내용】

단박툃은 '대북제재·코로나·수해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 당 창건 75주년에 내놓을 메시지'를 다루었고, 북한은 지금? 나우북은 '발 빠르게 전하는 금주의 북한 핫 이슈'를 소개했다. 우리가 연평도 공무원피살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할 것인가에 대해 좋은 관점을 제시했고 북한의 통일전선부 역할까지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 많은 참고가 됐다.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복원하기 위해선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북한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올바른 의견 제시였다.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북제재, 코로나, 수해 등 3중고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의 증강을 내세우며 인민들의 결속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 북한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행사를 강행했는지 궁금했는데, 북한이 직면한 3중고를 극복하기 위해선 내부결속을 다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을 것이란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북한의 '당 창건일'은 194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하는 날로 북한의 국경일로는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 그리고 세 번째 국경일이 당 창건일이다. 북한의 시급한 과제는 국제사회와 합의한 대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6.12 싱가포르 공동 성명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시행할 경우에 국제사회는 다시 북한에게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제법 위반으로 표류할 동안 제대로 된 구조 또한 없었고 정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바로 다음날 북한의 통지문이 전달되었다. 특히 통지문 속 김정은 위원장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한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았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미관계의 개선의 포석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꾀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0. 10. 10.	시청률	0.021

【총 평】

‘잊혀진 진실, 나주 민간인 희생 사건’은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에서 벌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비극을 담았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인민군의 남하와 수복이후, 마을 주민들은 군경에 빨치산 협력자나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혹은 아무 이유없이 학살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하는 비극이 나주 곳곳에서 일어났다. 나주 지역을 돌면서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이유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학살되었는지 꼼꼼히 알려주었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을 잘 전달했다. 특히, 언론사 기자가 프리젠티어로 참여하여 과거사를 바로 세우고, 바른 언론으로 가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었다.

【구성 및 내용】

70년 전 없어진 한 마을이라는 표현으로 일단 호기심을 유도했고 전신주, 입산자 가족과 같은 의문의 단어가 차례로 사용되어 궁금증을 유발했다. 나주시 문평면의 마을이 통째로 불타버린 이유를 설명하고 동막골에서 가족을 잃고 총상을 입은 채 살아남은 김재호 할아버지(당시 11살)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봤다.

김재호 할아버지는 당시 11살로 8살, 5살된 두 동생과 함께 끌려 나갔는데 총을 난사하기 시작하자 김재호 할아버지는 기지를 발휘해 두 동생을 안고 풀숲으로 쓰러져 목숨을 구하나 싶었는데 5살 동생이 고개를 드는 바람에 다시 시작된 난사로 두 동생을 잃고 말았다고 증언했다. 두 동생뿐 아니라 가족 여섯 명이 희생당했고 본인은 학교도 다니지 못해 지금도 한글을 모른다고 했다.

봉황면 학살사건은 입산자를 대상으로 전봇대의 전신주가 잘리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배당 받았는데, 20여일 지난 후 지서의 전신주가 잘리는 사건이 발생해 다음날 주민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빨치산에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당시 나주 경찰이 판단하여 주민들에게 총을 들고 무서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을 학살한 사건이다.

철천리 철야마을 동박굴재 학살 사건은 많은 학살이 자행된 동박굴재를 찾아 한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그리는 모습이 잘 그려졌고, 특히 이 부분에서는 당시 시기적으로 사형금지법이 적용받아야 할 시기에도 정당한 이유도 재판과정도 없이 무자비하게 자행된 학살사건이 엄연한 불법임을 강조한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렇게 희생된 분들이 당시 나주군에서만 100여 명으로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증언으로 사건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나주 동막골 양민 학살 사건을 1951년 6월 24일 나주경찰이 문평면 국동리 동막골에서 주민들을 집결시킨 후 남녀노소 구분없이 30여 명의 주민들을 사살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나주 동막골 희생 사건 생존자는 당시 가족들의 집단 총살 사건에 대한 증언을 적나라하게 들려줌으로써 국가권력의 과잉 진압 문제를 드러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10. 11.	시청률	0.001

【총 평】

최근까지 보건복지부 소속이었던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20년 9월 12일 독립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내용을 담았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경과와 국민의 생명과 감염병 등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질병관리청에 대한 궁금증과 앞으로의 과제를 담은 “질병관리청 승격, 무엇이 달라지나?”를 방송했다.

특히, 인사권과 예산권은 물론 관련 법령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연구 과제 등이 왜 중요한지, 조직의 변화 핵심, 기존과 다른점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질병관리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 질병관리청에서 조금 더 시각을 확대해 질병대응센터에 대한 구상안을 소개하고 지자체 방역 체계의 청사진을 그렸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을 새롭게 들여다보고, 정은경 청장의 인간적인 면모와 전문성을 동시에 드러낸 점은 흥미로운 요소로 작용하였고, 정부기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구성 및 내용】

전 국민의 목숨을 다루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조직체계는 그동안 허술한 점이 없지 않았고 중앙과 지방간 조직 연계조차 될 수 없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로서 K-방역의 성공을 이끌어내 큰 기여를 해왔음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른 의미와 함께 그동안 국립보건원에서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까지 경과, 그동안의 공과 실, 앞으로의 기대 등을 담았는데 질병관리에 관한 전체적인 방역과 행정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질병관리청 승격을 축하하는 청주시 한 시장 상인들의 소박한 선물에서 시작해 질병관리본부의 과거와 현재, 사스와 메르스 등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한계, 정은경 초대 청장에 대한 기대, 앞으로의 전망까지 감염병 방역과 행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청주시에 위치한 한 시장 상인들이 떡과 과일로 선물상자를 만들어 새로 개청하는 질병관리청에 보냈다. 코로나19 때문에 24시간 분투하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함께 청 승격을 축하하는 의미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위 공직자들의 임명장을 청와대서 수여하던 관례를 깨고 질병관리청을 직접 방문해 정은경 초대 청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 승격은 국민이 주는 큰 격려”라고 말했다.

과거 국립보건원에서 2003년 사스 사태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로 승격했지만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적지 않았다. 특히, 우수한 인력확보의 어려움속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으로써 국회에 직접 예산을 청구할 수 있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정부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와 조사 분석, 위기 대응, 예방 업무 등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 만들어져 역학조사와 긴급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해 더욱 기대를 갖게 했다.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10. 11.	시청률	0.012

【총 평】

밥보다 법 제7회 ‘누구에게 얼마를 물려줄까? 상속법의 모든 것’은 가족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상속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32년간 연락 없던 친모가 딸 순직 뒤 유족연금 찾아간 사례, 故구하라 법에 관해 정리를 하면서 상속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었다.

상속 분쟁의 유형과 법안에 대해 구하라법을 예로 들면서 최근 잦아지고 있는 상속 분쟁의 유형과 개정 발의된 상속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또, SNS와 전화연결로 직접 상담을 진행해 4개의 상속관련 다양한 분쟁이 소개되었다. 무엇이든 물어볼 法은 양성애자 남편과의 이혼소송에 대한 설명해 주었다.

【구성 및 내용】

상속에 관한 상담 및 상속 재산 분할 청구권이 10년 전보다 6배 증가했다. 구하라법은 자녀의 양육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현행 자녀의 유산 50%를 부모에게 상속하는 것에 대해 상속자격을 박탈하자는 법이다.

할아버지의 재산과 상속을 모두 상속받은 아버지와 이를 반대하는 나머지 형제들에 관한 사연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설명되어 인상적이었다. 효자의 기여분제도를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기여분으로 아버지가 편찮으신 할아버지를 모신 점을 감안하여 일정부분 더 받고 나머지는 아버지의 형제들과 나눠 가져야 한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에 관해 우리나라의 효자에 대해 인정해주는 기여분 제도와 유럽에는 기여분 제도가 없는 문화적 차이를 설명해주어 우리나라 법률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상속과 증여에 관한 내용으로 어렵듯이 알기는 하지만 그 정확한 정의나 세금의 차이에 관해 잘 모르는 시청자가 많을 것 같아 이 내용 역시 아주 유익했다. 증여와 상속 이외에도 이혼으로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 문제도 특별히 언급해 주었다.

전화로 직접 연결하여 사연을 들었는데 빗 상속에 관한 사연이 소개되었고 여기서는 한정승인제도에 관해 설명이 잘 되어 인상적이었다. 빗이 4순위까지 상속이 된다는 정보와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해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한해서 빗을 갚는 제도를 알려주었고, 빗 상속에 관한 법을 잘 몰랐던 경우나 미성년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다시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신청하여 빗상속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있음을 설명했다.

간병하는 할머니의 상속 상담을 대신 해온 간호사가 상담을 해왔는데 본처와 후처 자식간의 상속 문제, 특정 자식에 대한 상속 문제를 다루었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법도 추가로 소개해 주었다. 이 밖에 외도로 생긴 자식들에게의 상속문제를 다뤘는데, 유언장의 효력과 유류분 제도, 법적친자관계정리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10. 11.	시청률	0.057

【총 평】

‘우리는 집 대신 산을 샀습니다.’는 횡성군 소재 시골의 산을 매수 후 귀산한지 5년차 되는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은퇴한 60대 부부가 귀산을 통해 산을 가꾸며 제2의 인생을 알차게 꾸려나가는 이야기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부부의 삶을 통해 왜 산이 좋은가?, 산으로 온 동기, 산 속 힐링, 부부의 만족한 생활, 앞으로의 비전 등을 섬세하게 짚어 기획의도를 살린 구성이 흡인력과 설득력을 높였다.

또, 산을 디자인하는 남편, 산나물을 채취해 발효시키는 부부의 일상이 다큐형식으로 구성돼 만족감과 충만한 행복을 느끼게 해 준 점이 소구력을 제고했다. 성공적 귀산 사례가 은퇴자의 인생 설계에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했고 귀산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설계하고 추진하는지를 자세하게 그려냈다.

횡성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입지조건, 자치단체장의 지원 약속, 치유의 숲 단장 등으로 희망적 비전을 내다 볼 수 있게 마무리한 부분도 눈길을 끌었다.

【구성 및 내용】

‘우리는 집 대신 산을 샀습니다.’는 부부가 산길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소개하고 풍경에 대한 감상을 전해 함께 공감할 수 있었고 다양한 식물과 자연 먹거리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유용한 정보도 얻었다.

임업을 일거리로 삼아 모노레일을 타고 출근하는 등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자연친화적 풍경은 이색적이었다. 아침부터 남편은 산겹수국으로 화분을 만들고 아내는 꽃을 따서 꽃차를 만든다. 7월부터 한창 피는 금화규는 건강에도 좋다. 식물성 콜라겐이 듬뿍 들어있고 해독작용도 된다는 꽃이다. 한편 여기에 머문 숙박객에게는 특별한 아침을 제공한다. 자작나무 수액을 활용한 직접 만든 각종 장아찌를 비롯하여 남편이 직접 갈아 만든 감자전 등이 마련되었다. 금화규로 꽃차를 만들고 손님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차리는 등 산에서 얻은 식물로 음식을 만드는 일상은 주인공의 생활환경과 잘 어우러졌다. 산 속에 지은 집을 보여주며 집에 대한 철학을 밝히고 취미 생활 등의 일상을 소개해 인물 고유의 개성이 잘 드러났으며, 귀산촌 생활의 장점을 전해 현대 도시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주인공을 스토리텔러로 설정해서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산지기로서의 삶 속에 자작나무와 가을꽃 그리고 산속 먹거리를 잘 버무려서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산과 바꾸기로 한 결정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고 싶다는 노년의 깨달음 등 메시지가 적지 않았던 이야기였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또, 자신이 가꾼 산 속에 숲속교실이나 카페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삶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이야기는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뭔가 기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특별하게 다가왔다.